

아이 맡길 곳도 학원도 없으니... 입주 더디다

광주에서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서부광(42)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 2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사무실을 새로 내고, 주거지도 옮겼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섯살배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아내의 푸념을 들어야 했다. 서씨가 동지를 둔 아파트의 입주자 출세 시작돼 단지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열지 않은데다 학부 모들이 몰린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아이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회사에서 마련해준 광주시 남구의 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출퇴근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A씨가 '나주 살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아직 학원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주 여건 조성 안돼 나주 정착 못하고 광주서 출·퇴근

공공기관 직원들 헬스장 없어 유명 트레이너 초청 운동도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거주 주민들은 교육·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교육·육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의 이주 직원들이 광주에 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이주 기관이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학원과 문화시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턱없이 비싸게 형성된 전·월세 가격 탓이다.

18일 빛가람혁신도시 이주 기관들에 따르면 나주 거주를 원하는 직원보다는 광주에 터를 잡은 직원이 많이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기관의 직원수에 따라 적게는 2대, 많게는 10여대의 대형 관광버스나 아찔이 되면 이들의 출퇴근에 동원되고 있다.

이주 기관들도 광주살이를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광주시 남구 효천지구, 광산구

송정역, 첨단지구 등지에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주 기관의 직원이 나주에 정착해야 하는데 아직은 광주에 머물면서 나주를 오가는 과다하기를 거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나주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근 빛가람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은 직원들이 돈을 건어 광주의 유명 트레이너를 초청해 회사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다. 인근에 헬스장이 없어 직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통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학원과 헬스장 등 기본 편의시설이 문을 여는데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서는 현재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1년이 지났지만 정주여건 등 사회기반시설이 조성



'상가 임대' 현수막이 걸린 건물들이 늘어난 빛가람혁신도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때 턱없이 높았던 상가의 전·월세 가격 탓이다. 분양 이후 매매가가 지역에 따라 광주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제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초기 전·월세 가격이 비싸 1층의 경우 문을 닫는 상가도 생겨났다.

현재는 빈 상가가 많아 1층을 제외하고 가격이 조정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빛가람혁신도시의 편의시설 조성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혁신도시 상가가 비싸다는 소문은 무성 한데, 최근 가격이 내림세다"면서 "상가가 자리 잡아 정주 여건이 좋아야 이주 기관의 직원들도 나주로 이주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광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군부대 전력공급 설비 특별점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8일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군부대 전력공급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사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전은 비상상황 발생시 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서해5도 등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지휘부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를 정밀 점검했다. 또 이와관련 기자재를 보강하며 산악 등 취약 지역 전선로에 대한 집중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군부대 안에 있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도 열화상 진단 등 정밀 점검을 벌이고 노후 전기 설비에 대한 보수도 지원한다.

또 유사시 한전 인력의 접근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해 군부대 자체로 전기 설비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교육을 시행하고 비상 복구용 자재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방 부대들과 협약을 맺어 주 지역 전력설비 점검, 군부대 합동 전기 설비 복구 훈련, 전기설비 운영기술 컨설팅 등 총체적 전력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연구기관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7개 신규 지정 과제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 늘어난 477억원이다. 410억 원은 지정과제(신규 및 계속과제)에, 나머지 67억 원은 자유과제(신규)에 활용된다.

신규 지정과제는 ▲문화콘텐츠(영화·음악분야 2개 과제) ▲문화예술(공연분야 2개 과제) ▲서비스 R&D(전통문화, 문화창작융합디자인 분야 3개 과제) 등 3개 분야 총 7개다. 여기에 지금은 57억원이 투입된다. 최종 선정된 기관들은 과제특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는다.

○로광기자 penfoot@kwangju.co.kr

다문화·저소득층 어린이

30명 초청 '나눔과 동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은 최근 노동조합(위원장 신상철)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명을 초청해 '나눔과 동행' 행사를 열었다.

'나눔과 동행'은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다문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초청해 '뉴스제작 및 미디어체험', '국립광주과학관 전파체험관 방문', '드론 날리기' 등 전파와 관련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명룡 원장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길 바란다"며 "응기와 희망을 갖고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광기자 pboxe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최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명을 초청해 뉴스제작 체험 등 견학 프로그램을 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공>

aT 광주·전남본부, 계약재배 현장 밀착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문가·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aT 김재수 사장은 지난 16일 새해 첫 지역본부 순시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 본부를 방문해 수출 증대 등을 위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수출기업 대표, 유관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2016년 광주전남지역의 농식품 특화사업 및 수급 안정사업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부는 aT가 신규로 추진 중인 계약재배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조절과 계약재배사업의 조

기정착을 위해 계약재배 현장 밀착관리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을 통해 이 지역의 로컬푸드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도 지자체와의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지역 내 농식품산업과 관련해 생산, 유통, 식품 안전, 학교급식 등 aT와 연계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재수 사장은 "농수산식품의 개방화가 갈수록 확대되는 시기에 aT가 국제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식품산업을 창조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광기자 kroh@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